

남해군 농촌관광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최국현* · 김 호**

Development Strategies for Rural Tourism in Nam Hae

Choi, Kuk-Hyon · Kim, Ho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ural tourism policy in Nam-Hae county and to provide a strategy for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It was carried out on a basis that the rural tourism businesses are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Nam-Hae county office). In doing so,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 tourism resources of Nam-Hae area. Based on the survey, it classified the types of rural tourism and suggested provisional tourist maps by the type. This study assumed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a full responsibility for the rural tourism businesses from the initial stage of setting up development plans to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es. Rural tourism theme courses of each small-position area provided tourists with tour courses and time schedules depended on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areas. It produced a map that actually makes possible the theme rural touris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quality of living in Nam-Hae county would be improved with the rural tourism businesses which lead to increase in farm household income and to develop local settlement areas.

Key words : green tourism, natural environment, amenity and rurality, nam-hae, rural community, local economy

I. 서 론

최근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역사문화, 정주환경 등 농촌의 전형적인 특징이 반영되고

* 대표저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단국대학교 교수

보전된 농촌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즐기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촌 관광은 도시민에게 고향의 향수와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지속적인 확산은 여가의 가치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와 소득 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농촌관광이 농가소득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됨으로써 지역 독자적인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적 자원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고유의 자연환경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더욱이 숙박 및 위락시설의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해군 지역을 사례로 하여 농촌관광자원의 현황 및 특징 즉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 자원, 농업자원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농촌관광 지역으로서 성공 가능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의 농촌 지역자원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농촌관광 코스 및 농촌관광 기반시설 정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II. 농촌관광의 개념과 유형구분

1. 농촌관광의 개념

농촌관광이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말하며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농림부, 2001)이다.

즉 농촌관광은 단순한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업이나 친환경 생태 체험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의 도농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관광은 녹음이 우거진 전원에서 즐기는 체험관광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세분하면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농촌관광(rural-tourism), 농가를 찾는 농업관광(agri-tourism),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답사하는 생태관광(eco-tourism)으로 나눌 수 있다.

농촌관광은 농업체험, 농촌 정주문화 등을 관광 상품화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유발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또한 부가소득은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여가활동 기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형태 서비스로 제공되어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의 상호이해 및 공동의 이익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의 생활문화, 어메니티를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과 관광서비스 전략으로서 농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공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3. 농촌관광의 유형구분

1) 유형구분의 의의

농촌관광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시·군 혹은 면단위 지역의 리더(leader)가 주체가 되어 경영관리 측면에서 지역자원의 조직화 및 실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성공적인 농촌관광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촌 어메니티의 공급자로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각각의 자연자원 및 여건에 따라 모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 유형에 부합되는 모델 및 테마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모델별로 효율적이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농촌지역 자원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휴양욕구에 부응하는 유형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유형 및 기능 분석

(1) 농촌경관·체험형 요소

① 농촌 마케팅형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 유형으로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마을가꾸기 등과 함께 지역 산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도시민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와 농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마케팅 유형은 각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생산이 농촌개발의 핵심 요소이다. 이 때 농촌관광은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체험을 통한 판매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와 시장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관광 지역에서 체험 마케팅 추진이 가능하다.

② 농촌경관 휴양단지형

지역의 경관 어메니티와 연계한 경관 상품형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고유의 토속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 경관 등의 상품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농촌관광 유형이다. 이 유형은 지역특산물 판매,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특산품이나 주요 경관 어메니티의 개발을 통한 전

국적인 인지도 상승이 농촌관광을 통한 관광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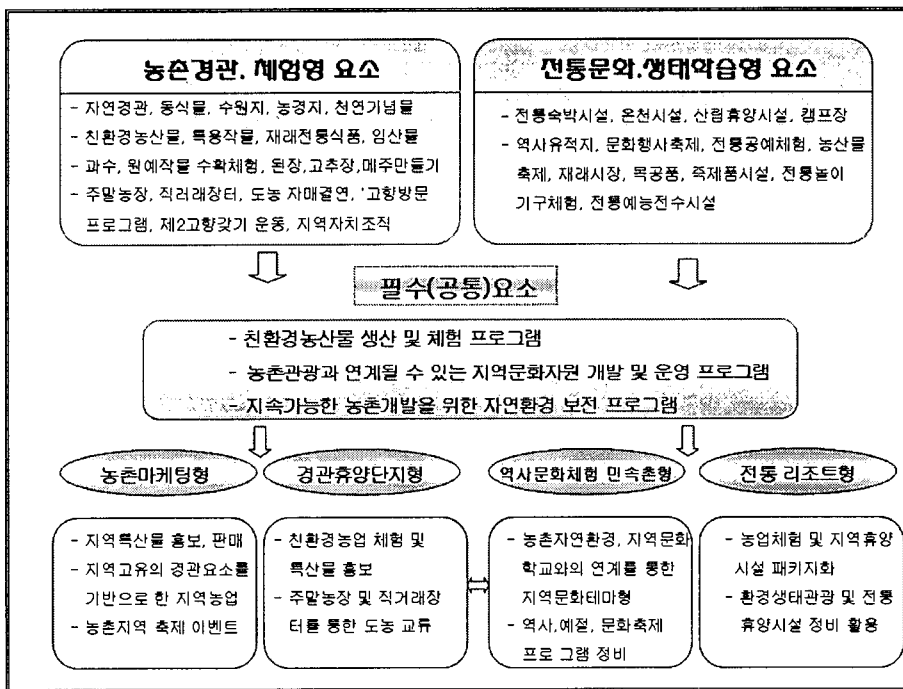
(2) 전통문화·생태학습형 요소

① 생태 문화관광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전통 리조트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공통적인 유형으로서 농촌지역 고유의 이미지 제 공을 기본요소로 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체험, 농어업체험, 농가민박과 함께 지역유적지, 명 승지 등을 패키지(package)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모내기, 벼베기, 고추 따기 및 어로체험, 갯벌체험 등과 같은 농어업체 험, 인근 사찰 혹은 호수(남시) 등과 같은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유형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창출 효과는 미흡하지만,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지역 경관 마케팅과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태학습형 관광도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체험 유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이며, 더불어 다양한 주변 명승지 등의 볼거리 개발을 통해 고부가 가치 소득창출 산업으 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 농촌관광 유형 분류도

② 역사·문화체험 민속촌형

역사·전통적으로 특성화된 지역에서 역사체험, 산촌체험, 예절 체험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전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이미지 홍보와 체험 활동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이다. 타 유형과 달리 농업 체험보다는 농촌 정주 공간에 대한 체험이 중심이 되는 전통문화 체험관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과소화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능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남해군 농촌관광사업의 여건분석과 기본방향

1. 남해군 농촌관광 추진배경과 여건분석

1) 추진배경

도시화·정보화의 진행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 및 관광행태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광행태의 변화추세는 리조트형 관광, 농촌관광, 생태자연 관광, 레포츠 관광 등 체험형 관광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해군의 특성에 부합되는 관광행태로는 농촌관광, 생태관광, 레포츠관광 등을 들 수 있다.

남해군의 농촌지역은 경관 어메니티의 보전이 잘 되어 있고, 역사·문화자원이 지역 내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농촌관광 추진에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을 가진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한려수도 해양 관광 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여건분석 :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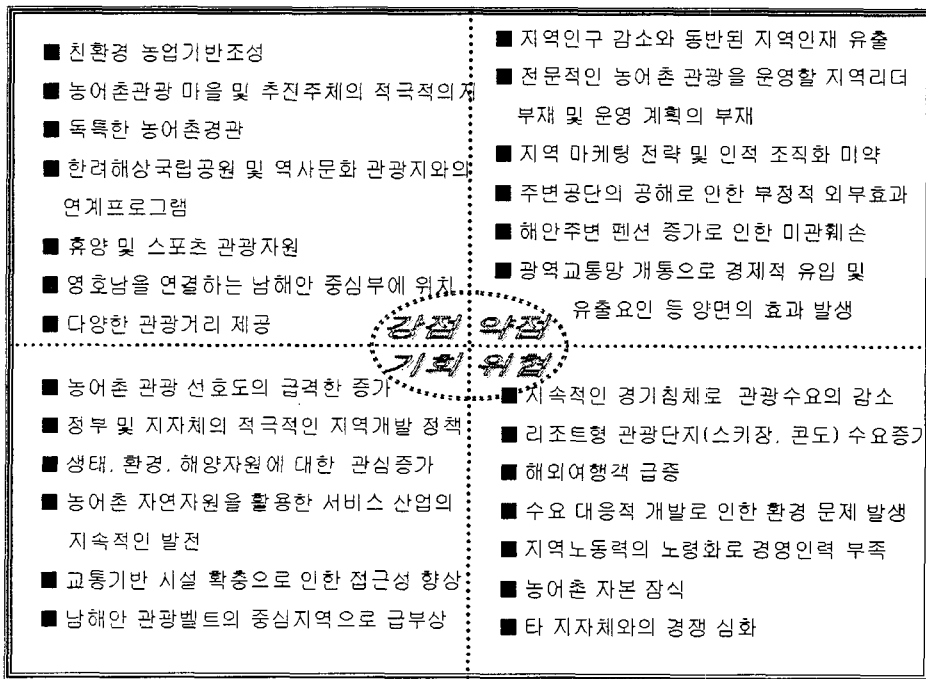
남해군 농촌관광에 대한 여건분석으로서 SWOT 분석을 하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남해군이 가지는 강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관광기반 시설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도서(島嶼) 이미지와 결합되어 풍부한 농촌 및 어촌 관광자원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관광자원과 복합된 농촌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약점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농촌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 즉, 남해군의 인적자원 구성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청정지

역이라는 이미지가 주변의 대규모 공단에 의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도 남해군의 농촌관광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정부의 적극적인 농촌지역개발정책, 교통시설의 확충 등 많은 기회요인 등은 남해군이 농촌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남해군이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농촌관광이 확산되어 인근 지자체와 상호 경쟁이 심화될 때 농촌관광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 남해군 농촌관광 SWOT분석

2. 남해군 농촌관광의 기본방향

1) 지역 테마의 특성화

최근 들어 여가활동과 농촌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해군 농촌지역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교류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 근교 농촌지역은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주말 주거지역 혹은 주거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테면 남해군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생태환경, 문화환경, 산업요소들을 지역 경관 어메니티와 결합 재구성한 복합테마형으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즉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공간차원에서 농촌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기능들이 조합된 형태로 테마를 구성해야 한다.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발 및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

첫째, 남해군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하나의 이벤트 형태로 조직하여, 남해군을 방문한 도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해군의 농수특산물을 상품화하고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말농장,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도농 교류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남해군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구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조직의 활성화, 농촌관광을 위한 공동조직 운영,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농촌관광 유형이 결정되고 공간차원의 테마가 결정되면, 다양한 홍보수단(인터넷, 지역방송, 일간지)을 통한 지역 테마 마케팅을 강화해야한다. 이때 지역주민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해군청 및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남해군 지역테마의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은 <표 1>과 같다.

<표 1> 남해군 지역 테마의 특성화 방안

지역의 테마		특성화 방안
자연생태환경	산, 바다, 주변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환경보존 • 생태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농촌산업자원	농·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품 개발 및 판매 (친환경농산물, 특산품에 대한 마케팅) • 주말 농장, 직거래 장터 개설
	산업형태 (친환경농업, 축산,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친환경양식, 원시어업 • 친환경농법 체험 • 향토음식 테마거리 및 레스토랑
	체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생산체험교육 • 자연생태(자연림, 갯벌) 체험시설
역사·전통 문화자원	유·무형 문화 (전통가옥, 사찰, 사당, 민간신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전승 및 복원 • 역사·문화 투어 프로그램 • 도·농 교류, 주말예절학교

사회적 특성	주민의 화합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행사, 친환경농업 등 지역 활성화 방안 • 지역협의기구(보물섬 그린투어연합회)
지역 홍보	지역홍보 및 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테마 대외홍보 • 지역 특산물 판매

2) 남해군의 특성에 따른 농촌관광 추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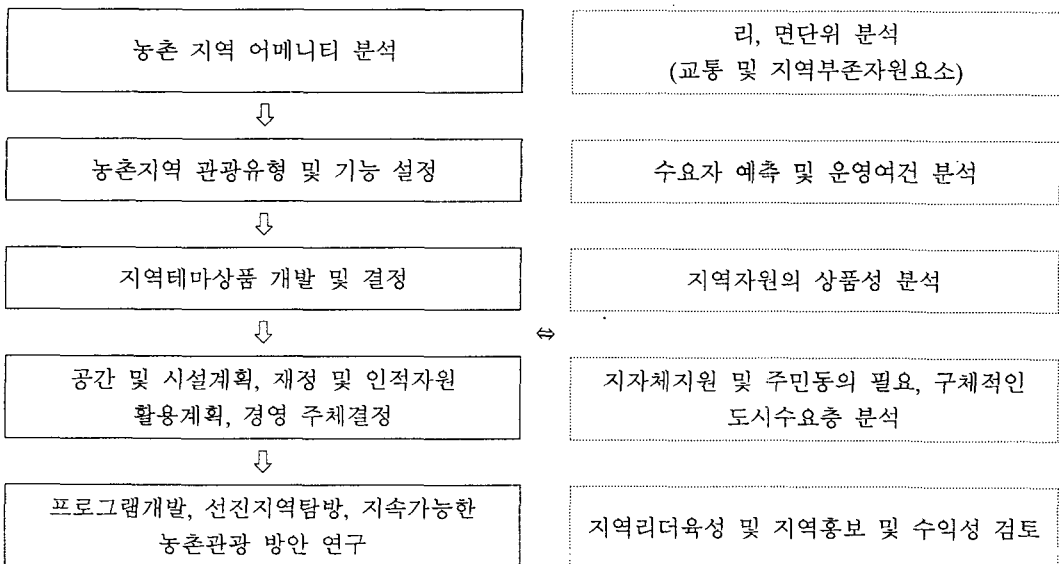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남해군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운영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농촌관광지로서 해당지역을 정비하고자 할 때는, 자연자원 및 지리적 여건, 인적, 문화적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남해군의 소거점 지구에서 운영할 농촌관광유형 모델을 설정한 후, 어떤 테마를 부각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관광유형이 설정되고 테마가 결정되었다면, 지역자원이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있는지, 테마를 통해서 수익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관광지역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테마)이 정해지면 지자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시설계획, 재정 및 인적자원 활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성공사례지역 탐방 등을 통해 거점 소지구의 특성에 따른 농촌관광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때,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한 방안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 농촌관광 추진 프로세스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어떤 자연환경요소 및 전통문화요소의 상품화가 가능하고 상품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농촌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요소와 특성이 어떠한지, 어떤 형태로 경관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가치로 유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상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 테마 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인적구성과 농촌관광 테마설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역할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역의 경관 어메니티 자원을 형성, 유지, 관리하는데 인적주체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마케팅 전략 및 경관상품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의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농촌 어메니티를 상품화할 경우, 운영프로그램 및 경관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마케팅, 홍보, 기술지원 등은 남해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해군은 이벤트나 축제 등과 같은 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홍보 방법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 홍보효과, 수익성 등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 지원책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여 해당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남해군 농촌관광의 추진전략

1. 유형별 추진전략

1) 농어촌 마케팅형

남해군에서 마을단위 농촌 마케팅형 추진 가능지역은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산시설이 존재하는 곳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역, 특용작물, 전통장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이 유형은 농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생산 유통과정이 농촌관광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통해서 농사체험, 전통장류 생산 등을 목적으로 남해군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품판매를 통한 소득향상과 함께 지역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농지를 무료로 분양하는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운영은 무료 분양된 농지의 농작물 관리를 위해 도시민들은 지속적인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농지의 관리와 농사 지도자(instructo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가 바탕이 된 도농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한 농어업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며, 지역주민들은 농촌 지역의 활력과 더불어 부가소득을 얻게 되는 win-win 전략의 형태가 될 것이다.

어촌 마케팅형에 있어서는 수산물의 수확 및 채취의 특징이 농산물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로 및 어촌체험에 중점을 둔 마케팅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촌 마케팅형은 계절별 수산물 채취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취한 수산물·해조류 등을 방문객이 가지고 돌아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의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어촌지역 방문을 통해 발생하는 민박·식사 등 부가적인 소득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¹⁾ 또한 단순 체험 작업만으로는 도시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 해상관광투어 프로그램, 선박낚시 및 갯바위 낚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표 2〉 농어촌 마케팅 추진사업

구 분	농촌마케팅 추진사업	어촌마케팅 추진사업
교 류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분양형 주말농장 • 농사 체험프로그램 • 전통장류 생산 • 친환경농업지구 • 농사 instru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 및 양식 체험프로그램 • 어선을 활용한 해상관광 투어 • 갯벌체험 및 해산물 채취 • 갯바위 낚시 프로그램
농수산물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판매 • 직거래장터 • 특산물 판매장 •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수산물 배송서비스 • 수산가공식품 판매

지역 마케팅 중심의 농촌관광 사업은 주말농장, 농어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도시민들에게 농촌관광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마케팅 유형은 지역산업 자원을 활용한 유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투자 및 기반정비 사업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즉 지역 별로 기본적인 요건과 의지만 갖추고 있다면 마을단위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촌관광 휴양단지형

농촌관광 휴양단지형은 앞에서 언급했던 농어촌 마케팅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형은 지역의 경관 어메니티와 연계한 경관상품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농촌지역 고유의 토속적인 환경, 어촌지역의 원시어로 방법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

1) 수산물 판매수익과 민박 및 식사제공 등 부가적 소득간의 실증적 비교는 추후 연구과제로 함.

특한 생산방식, 특산물, 경관 등을 상품화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군도 농촌관광 휴양단지형 지역을 설정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관 어메니티의 개발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촌관광마을로서 인지도를 가진 다랭이 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랭이 마을의 독특한 계단형태의 논은 생산측면의 요소보다는 해안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하고 있는 다랭이논의 경관미로 인해서 더욱 어메니티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관적 가치로 인해 다랭이 마을의 특산물인 다랭이콩, 마늘, 건홍합 등의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박을 통해서 부가 수익창출을 이끌어 내고 있다.

어촌지역의 사례로서는 원시 죽방렴을 들 수 있다. 원시 죽방렴이 설치되어 있는 삼동면 지죽해협은 물살의 흐름이 빠르고 수심도 깊어 고기가 많이 몰려 천혜의 죽방렴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대나무와 같은 재료로 발을 엮어 울타리를 만들어 고기가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에는 퇴로를 차단하여 도피하기 어렵도록 하여 어획하는 방법의 원시어업이다. 다랭이논처럼 죽방렴도 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어촌경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훌륭한 경관요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죽방렴의 존재가치는 남해의 어촌마을 및 어업의 무형·유형의 경관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전통휴양시설 리조트형

남해군의 농촌관광 추진은 지역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남해군 전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 그 주안점이 있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관광사업 추진은 남해군의 모든 역량을 이끌어내어 전 지역을 균형적이고 최적화한 지역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종합개발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남해군 종합개발사업 측면에서 전통휴양시설 리조트형은 남해군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숙박시설, 산림휴양시설,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 복합 레저 농촌관광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남해군내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고급 민박시설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 및 리조트 시설 등 기존 관광인프라 휴양시설을 활용하여 고급화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촌관광의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농촌관광을 통해 남해를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숙박시설 및 식품위생에 대한 불안감, 농촌 지역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고급화된 시설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농촌관광 기본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반(半)농촌관광(semi-green tour) 형태로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는 농촌관광 본래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시설을 정비해 가야 할 것이다.

남해군은 도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개발 및 정비를 통해 농촌관광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해군의 지역주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휴양시설을 살펴보면, 기존의 해양관광지 주변에 산재한 펜션 및 리조트와 함께 스포츠 파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내륙 산악지역의 삼림욕장에 위치한 통나무집 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편이다. 이러한 기본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원하는 레저 활동과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4) 역사·문화체험 민속촌형

역사·문화체험 민속촌형은 남해군의 역사적, 전통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역사체험, 문화체험, 예절체험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남해군 농촌지역의 역사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역사문화 자원을 매개로 한다. 남해군의 경우 그 동안의 역사·문화에 관련된 관광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만, 이에 대해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였고 효율적인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남해군 내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남해군의 역사체험형 요소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몰유허지,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인 금산 보리암,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인 노도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탐방 아이템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문화 체험형 요소로서는 남해향교 및 문화원에서의 예절체험, 민속마을, 독일마을 등과 같은 전통적이고 이국적인 요소가 고루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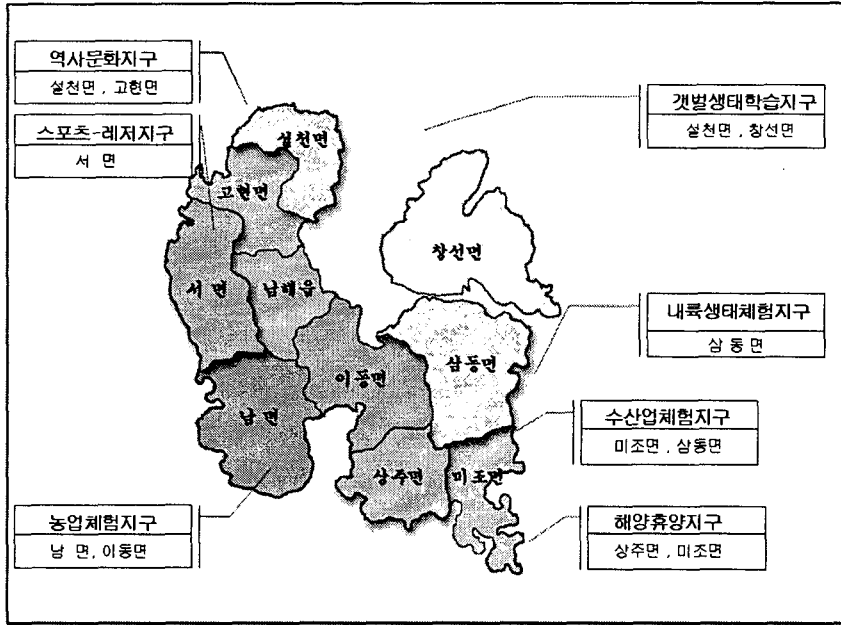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역사·문화 체험 요소를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전통휴양 리조트와 연계하여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내 전통가옥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역사·문화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민속마을 형태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테마별 코스 설정

남해군은 섬으로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지리적으로 타 지자체와 육지로서는 접경을 이루고 있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진 지역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서 국토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왔고, 군내 자체 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된 곳이다. 그로 인해 서남부권의 해양관광자원 및 면소재지 중심의 국지적인 개발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기존 국도를 중심으로 한 편중개발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남해군으로서는 농촌관광의 추진을 위한 신규 거점지역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다랭이 마을과 같이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명소개발은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신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의 남해군 10개 읍·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관광의 거점지구를 설정하여 그린투어 유형별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남해군 주요 관광 거점 지구

1) 농어업 체험중심의 코스

남해군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농반어 형태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산악으로 형성된 도서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 때문에 구릉지에 조성된 소규모 한계농지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져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다. 또한 어업분야에 있어서도 주변 공단들로부터의 외부 불경제효과로 인해서 수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농어업 체험중심의 코스는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 기존 관광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소화된 농촌지역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농촌경관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군내에 산재한 다락밭이나 다랭이논을 생태농업이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원시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체험중심의 코스 운영이 가능하다. 즉, 자연환경, 농어업, 농촌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농작물 및 어촌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개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한 코스이다.

농작물체험으로는 모내기 준비작업·모내기·김매기·벼베기 등이 있고 어촌체험으로는 어로 준비작업·갯벌체험·낚시체험 등이 있다. 농어업 체험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

테마코스는 계절별·산업별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2) 생태학습형 코스

생태학습형이란 가족단위(아이들)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형태이기 때문에 학습효과와 휴양기능이 접목된 지역이 유리하다. 내륙지역의 편백 자연휴양림, 나비를 생태로 한 자연학습장(내산리), 원시어업(죽방림)체험, 강진만 주변갯벌(삼동면, 창선면, 설천면) 갯벌생태체험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내륙지역의 자연휴양림(내산리)에서의 여가활동은 방문객들에게 보견휴양 및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연교육의 장과 놀이공간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속의 숲과 나무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계절 특성을 통한 관광이 가능하다. 특히, 내륙 생태관광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산리의 경우, 국립공원인 금산 및 보리암과 연결되어 있고 내산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지를 바탕으로 하는 내륙생태 관광코스로 유리한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특정 이벤트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해군의 주요 생태관광 이벤트인 봄·여름의 ‘벚꽃축제’, ‘나비축제’, ‘숲 속의 학교’ 프로그램과 가을·겨울의 ‘단풍축제’, ‘밤따기 행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더욱이 숙소로 사용될 통나무집 주변의 산책로와 등산코스를 이용한 동적인 관광과 바비큐 파티, 산채요리와 같은 먹을거리 요소와의 결합은 농어업 체험 프로그램의 보완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다를 활용한 생태체험으로서 갯벌생태체험과 원시어업체험을 들 수 있다. 남해안 동부의 강진만을 따라 띠 모양으로 길게 발달한 갯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해의 강진만은 저질이 간사지를 제외한 전 해역이 주로 빨밭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조개, 새조개, 바지락, 고막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생태조건을 간직하고 있는 강진만은 남해를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갯벌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갯벌생태자원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갯벌생태교육, 갯벌전시관 등을 통한 학습적인 측면과 갯벌 체험장, 갯벌축구장 등 오락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갯벌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갯벌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 즉 효율적인 체험활동 지원과 교육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강진만을 중심으로 1~2개 정도의 갯벌체험 교육마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인공적인 시설물의 조성을 최소화하며, 갯벌 체험 후 휴식을 취하거나 몸을 씻을 수 있는 간단한 기초 편의시설의 운영이 요구된다.

3) 역사·문화 중심 코스

역사 문화 중심의 코스는 남해군내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이나 문화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남해군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으로는 이충무공 전몰유허지와 조선의 건국설화를 지닌 남해금산, 보리암 등이 핵심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현수교인 남해대교 주변의 이충무공 전몰유허지에는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이락사, 거북선 등 이순신장군의 숨결이 느껴지는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11월 19일을 전후해서 개최되는 ‘노량해전 승첩제’ 등이 주요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산은 조선 건국 이전에 이성계가 조선의 개국을 앞두고 백일 동안 기도를 올렸는데 조선이 자신의 뜻대로 개국되자 그 보답으로 산을 온통 비단으로 덮겠다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비록 해발 681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기암괴석이 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아름다운 해안과 맞물려 절경을 이루고 있다. 마치 고운 비단 치마를 입고 있는 것처럼 산이 수려하고 눈부시게 하는 비경이 곳곳에 숨어있다. 금산의 제1경인 쌍홍문을 비롯하여 38경이 해발 681m의 조그마한 산에 자리하고 있다. 기암절벽과 해안의 절경이 어우러져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산은 바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명산이다. 금산은 빼어난 경치와 더불어 동물 형상의 바위가 많아 바위동물원으로 불리우며, 쪽빛 바다와 초록빛 들녘의 조화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유일한 산악공원이다.

또한 금산의 정상에는 강원도 낙산사 홍연암, 경기 강화도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의 하나인 보리암이 있다. 금산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보리암은 금산의 온갖 기이한 암석과 푸르른 남해의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이다. 경내에는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좌선대 바위가 눈길을 끌며, 부근의 쌍홍문이라는 바위굴은 금산 38경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남해군 곳곳에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역사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예컨대, 조상들의 지혜 속에 풍어를 기원하고 해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방조어부림, 미조 상록수림과 가천암수바위 등 많은 유·무형의 민속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남해군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탐방 프로그램 코스는 이곳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해 슬기롭게 대응한 조상의 지혜와 호국정신을 느끼게 할 수 있다.

4) 블루투어·그린레포츠 중심 코스

남해군의 상주해수욕장 등 여러 해수욕장 및 등산코스, 낚시, 해양스포츠, 항공스포츠(패러글라이딩), 스포츠파크 등을 활용한 레저 중심의 코스가 있다. 남해군의 대표적인 여름휴양지인 상주해수욕장과 송정·설리 해수욕장 등을 연계하는 해양휴양벨트 형태로 설정이 가능하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낚시코스, 스킨스쿠버 등의 다양한 해양 레저 프로그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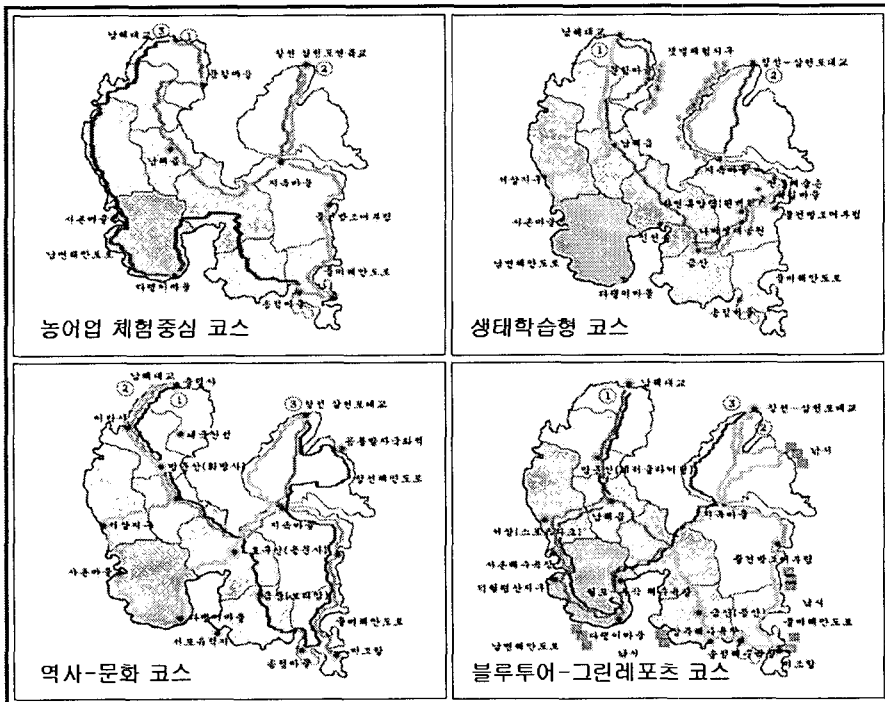
운영을 통해서 4계절 휴양지로 변모가 가능할 것이다.

해양휴양벨트는 상주해수욕장을 중심지구로 설정하여, 물놀이형 시설과 운동장, 휴식 공간 등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단순한 물놀이 기능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송정리 ‘한솔마을’)의 농촌관광 기능을 접목시킴으로써 어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블루 투어리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전국의 프로팀 및 아마추어 축구, 야구팀의 전지훈련장으로 특화되어 있는 서면 지역의 ‘남해 스포츠 파크’와 인근 남면 덕월·평산지구에 계획 중인 골프장 등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을 종합 스포츠레저 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운동선수와 레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일반관광객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랭이마을과 사촌마을 등의 농촌관광 기능과 레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접목된 그린 레포츠 관광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역인 상주면과 스포츠 시설 중심인 남면, 서면을 해양 레포츠 지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해당 주민으로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 레포츠 중심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숙박 및 경관체험 등을 접목한 레포츠 중심의 그린투어 코스의 설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남해군 농촌관광 유형별 코스

3. 체류기간별 그린 투어 코스

1) 당일 코스

남해군을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해 당일 코스로 방문하는 경우, 체험프로그램 및 테마 중심의 관광은 시간 관계상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해안선 일주 프로그램, 보물섬 버스타어, 해상유람선을 통한 1일 관광과 향토음식 테마거리에서의 식도락을 즐기는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2) 1박 2일 코스

숙박이 가능한 형태의 코스를 의미한다. 모든 형태의 숙박이 가능하지만 그린투어 관광 형태와 일반관광 형태와는 구별된 숙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 체험관광을 하고자 하는 방문객에게는 농촌 중심형 테마코스를 중심으로 농어가 민박형태의 숙박시설을 권장한다. 그리고 일반관광 형태를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관광성향에 따라 군내 고급 숙박시설(펜션, 콘도,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관광성향을 가진 방문객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첫째 날은 농촌체험 및 생태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2일째는 당일코스 프로그램을 적용한 보물섬 관광투어 일정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방문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의 체험프로그램만 강요된다면 남해군을 재방문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그린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박 3일 코스

이 경우도 1박 2일과 마찬가지로 농촌관광 및 일반관광 투어 형태로 숙박형태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농촌 체험관광만으로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힘들며, 방문객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분류한 테마 중심의 코스별로 각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1일은 농촌 체험프로그램, 2일은 블루투어 및 그린레포츠 프로그램, 3일은 역사문화 답사 또는 생태학습형 코스 등으로 구성해서 농어업 체험, 위락중심의 관광, 학습형태 관광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단, 남해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그린투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4) 장기 체류

장기 체류형은 일반적인 주말 관광, 계절별 관광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즉 방학을 할

용한 어린이 및 청소년 수련원, 고향출신 노인들을 위한 실버관광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버관광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분양과 함께 부설 농장의 토지를 노인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노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한 간단한 채소재배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말을 통해서 자녀 및 손자들이 부모님 방문과 주말농장 체험을 위해서 주기적인 방문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그린투어 프로그램의 역할을 할 것이다.

〈표 3〉 체류기간별 그린투어 관광코스

체류기간	권장 테마별 코스	중심 계절
당일 코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선 드라이브 • 향토음식특구 • 보물섬 관광버스투어 • 해상유람선 투어 • 생활 스포츠 	사계절 사계절 사계절 봄~가을 사계절
1박 2일 코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주말농장 • 어촌체험마을 및 낚시 • 생태학습체험(내륙, 갯벌) • 이벤트, 축제 체험 • 일출, 일몰 관광 	봄~가을 사계절 봄~가을 봄~가을 겨울
2박 3일 코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 학습투어 • 테마코스별 관광 • 블루투어 및 그린레포츠 •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봄~가을 사계절 여름, 가을 봄, 가을
장기 체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장 • 실버타운 • 귀향프로그램 	여름, 겨울 사계절 사계절

V. 요약 및 결론

남해군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농촌관광의 유형분류, 추진프로세스, 농촌관광 운영 방향, 사례지역 관광요소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분석을 토대로 남해군 농촌관광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테마유형별로 코스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연구는 다른 지자체에서 농촌관광의 운영방향을 구상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운영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어메니티의 경관상품화를 통해서 지역의 볼거리를 창출하고, 경관요소들을 연계한 테마 프로그램으로 재창출시켜서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경관 어메니티의 발굴과 더불어 지역테마 프로그램의 수립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경관요소 가치의 향상뿐 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 및 농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농촌관광사업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정주공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농가소득이 증대하게 되면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남해군의 농촌관광을 친환경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접수일 : 2005. 6. 2. 최종논문접수일 : 2005. 9. 11.]

참 고 문 헌

1. 남해군. 2004. 남해군 관광개발 10개년 사업계획.
2. 류선무. 1995.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3. 박시현 외.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이호철. 2001. 지역경영형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주체 형성과 지역개발.
5. 정삼철·우장명. 2003.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6. 최국현. 2005. 남해군 농촌관광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